

‘말차 열풍’ 속 보성군 차 산업 고도화 나선다

‘말차코어’ 트렌드, ‘힙한 웰빙’ 상징 산업 기반 확충·콘텐츠 개발 등 집중 중국 운남농업대학 등 세계화 협력도

전라남도 보성군이 ‘말차코어(Matcha-core)’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세계적인 말차 열풍이 불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차 산업 고도화와 문화·관광 콘텐츠 제작, 국제 교류 등 관련 전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5일 보성군에 따르면 선명한 초록빛과 건강한 이미지가 결합된 말차는 최근 MZ세대의 취향을 조준하며 커피를 대체하는 음료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웰니스, 저속노화, 힐링루틴, 가치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차’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보성군은 올해 차 산업 제2의 부흥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생산에서 유통, 체험과 수출까지 이어지는 전방위 차 산업 전략에 시동을 걸고 있다.

먼저 올해 차 생산시설 자동화·현대화 사업에 약 5억원을 투입해 18농가의 재배시설을 첨단화하고, 동해 방지사설과 차광막 설치를 지원한다. 또 수출을 겨냥한 평지다원 조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차광막 자동 개폐 및 스마트 관수 등이 적용된 ‘스마트 차밭’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친환경 가치 확산에도 집중하고 있다. 국제유기인증 면적을 80ha로 확대하고, 차밭 경관보조금(280ha), 유기질비료 지원(251ha), 국제인증 심사비 등을 지원해 유럽, 미국, 일본, IFOAM 등 세계 각국의 친환경 기준을 충족한 ‘글로벌 인증차’ 생산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

총 110억원 규모의 ‘보성 차산업 고도화 프로젝트’를 통해 녹차가공유통센터 일원에 기능성 소재 융복합 플랫폼, 유통·마케팅 체계, 생산조직 네트워크 구축할 계획이다.

군은 ‘제48회 보성다향대축제’, ‘국가중요농업유산축제’, ‘제11회 보성세계차엑스포’ 등을 성황리에 개최한 데 이어 오는 10월 보성만의 정체성과

브랜드를 기반으로 ‘2025 열선루 통합축제’와 연계한 ‘제13회 보성세계차박람회’를 추진한다. 차 문화 체험, 다도·제다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통 제다 기술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제다 명인’ 양성 과정, 보성 전통 차농업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유산의 계승과 인재 양성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잡고 있다.

보성군은 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보성 차의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중국 운남성의 농업 특성과 대학인 운남농업대학 대표단이 보성군을 방문해 차 산업 인재 양성과 보성 차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운남농업대학은 세계적인 보이차 산지로 알려진 운남성(雲南省)을 대표하는 농업대학으로, 차 재배, 가공, 유통 등 차 산업 전반에 걸친 교육과 연구 역량을 갖춘 대학이다.

대표단은 보성을 찾아 차 산업 전문 인력 양성 방안, 차 문화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보성 차 수출 확대를 위한 공동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보성차밭과 차 재배 농가, 가공시설 등의 현장을 둘러보며 보성 차의 우수성과 유통 기반을 직접 확인했다.

군은 신규 디자인 포장재 제작, 미국·유럽 등 해외시장 개척 보성물 관측행사·라이브커머스·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통합 유통·수출 전략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차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보성의 대표 유산이자 산업으로, 녹차에 이어 말차 하면 ‘보성’을 떠올릴 수 있도록 차 산업과 관광, 콘텐츠를 연계한 고부가가치 전략을 강화하겠다”며 “보성 차의 세계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성·양중수 기자



광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전라남도 광양시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지원사업(3차)’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해야생동물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철망 울타리, 전기식 울타리, 방조망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시에 경작지를 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

업·임업·어업상의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다.

지원 규모는 설치비의 60%를 보조금으로, 40% 이상은 자부담으로 한다. 농가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경작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최근 5년 내 피해예방시설 지원 이력, 설치비 규모, 특용작물 재배 여부 등 세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장흥군, 탐진강변 2km 구간 야간경관 조성

전라남도 장흥군이 탐진강 일원의 ‘문흥빛의 거리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총사업비 약 40억원이 투입됐다. 지역민과 관광객의 산책 명소로 사랑받고 있는 탐진강 주변 약 2km 구간에 조명시설을 설치해 야간 경관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문흥빛의 거리 조성사업에는 다채로운 색감의 경관조명과 미디어 아트 요소가 적용돼 탐진강의 자연 풍경과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인 야경이 연출됐다.

산책로를 따라 설치된 감성 조명과 물위에 반사되는 빛은 사진 명소이자 야간 힐링 공간으로 인기를 얻을 전망이다.

장흥·김전환 기자

순천경찰서, 상반기 ‘마약류 단속’ 전남 1위

순천경찰서가 올해 상반기 실시한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결과 전남경찰청 22개 경찰서 중 1위를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월17일부터 6월30일까지 진행된 집중단속은 마약류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사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순천경찰서는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정보 수집, 현장 단속강화, 유관기관 공조 수사 등을 통해 총 38명의 마약류 사범(양귀비 사범 32명, 향정신성의약품 사범 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양귀비 밀경작 단속뿐만 아니라 향정신

성의약품 불법 유통과 온라인·SNS를 통한 신종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 내 마약류 범죄를 원천 차단했다.

송창원 순천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온라인·SNS 기반 신종 마약류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과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며 “이를 통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순천을 만들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믿음직한 지역사회를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여수시, ‘양식·관광 연계’ 中 해상풍력단지 견학

운영 사례 공유·어민 공존 방안 모색

전라남도 여수시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어민단체와 함께 중국 광둥성과 푸젠성 일대 해상풍력단지를 방문해 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15일 밝혔다.

견학단은 여수시 기획경제국장을 단장으로, 거문도수협 조합장, 여수수산인협회장 등 어업인대표 7명과 삼산면·남면·화정면 주민대표 6명, 여수시의회 의원,

녹색에너지연구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교수 등 총 26명으로 구성됐다.

중국을 지난 2월 기준 전 세계 해상풍력 발전 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광둥성과 푸젠성 일대에서는 해상풍력단지 내에 가두리 양식장과 해조류 양식장, 부유식 단지 내 양식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견학단은 중산시청을 비롯해 터빈공장인 밍양스마트에너지 본사, 후호 해상풍력단지 내 가두리양식장(CGN 운영), 푸저우시 공기업 동방전기 지사, 핑탄종합

실험구, 핑탄 해상풍력 관광단지 및 관제센터 등을 방문했다.

견학에 참여한 삼산면선주회 영어조합법인 대표는 “핑탄 해상풍력 관광단지를 보며 막연했던 불안감이 해소됐다. 조업과 관광업이 공존하는 거문도의 미래를 기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을 받아 3GW 규모의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를 개발 중이다. 오는 2026년 3월 이후 전국 최초 국가주도사업 ‘예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고흥군 동강면, ‘열무김치 나눔’ 취약계층에 온정

고흥군 동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1인 가구, 장애인, 취약계층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여름철 밑반찬(열무김치)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여름철 밑반찬 나눔행사’는 취약계층 150세대에 여름철 대표 밑반찬인 열무김치를 직접 만들어 전달하는 동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이다.

협의체 위원들과 마을 부녀회장들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열무김치를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

한편 동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 상반기 130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의달 효사랑 선물지원, 여름철 행복이불 지원 등을 추진했다.

앞으로도 추석 명절 나눔꾸러미 전달 등 온기 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흥·심정우 기자



고흥군 동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마을 부녀회원들이 1인 가구, 장애인, 취약계층 고령자에게 전달할 열무김치를 만들고 있다. 고흥군 제공